

120+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
1905-2025 KOREAN RED CROSS

Red Cross

2025 vol. **582** SUMMER

1959



2002



2016



2022



사진으로 보는 대한적십자사 120주년-②

1974. 4. 1.

세계 헌혈의 해를 맞아, 매혈 취급을 중지하고
순수 헌혈에 의한 혈액수급제도로 전환



1975. 5.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한 베트남 난민



1976. 5. 8.

의료혜택이 소외된 낙도 주민에게 찾아간
적십자 병원선 '백련호' 취항



1986. 9.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된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요원



1985. 9. 20.

남북분단 40년 만에 서울과 평양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1984. 2. 18.

아프리카 난민 돕기 사랑의 쌀 한 줌 모으기 운동 전개
(니제르, 수단 등에 60만 달러 상당 구호품 전달)



1989. 9. 25.

소련 사할린 거주 동포 40명
첫 번째 단체 모국 방문

1994. 10. 21.

성수대교 붕괴현장에 긴급구호활동으로 파견된
구호요원과 봉사원



1994. 12. 7.

서울 마포 가스폭발사고 현장에서
주민 대피 안내 및 이재민 구호활동



1995. 5. 10.

아시아-태평양지역 적십자 봉사원대회



1997. 6.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5만 톤
비료 지원 출항 보고회



1996. 10. 18.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한국인 피해자를 위한
합천원폭피해자 복지회관 개관식



19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구호요원 파견,
인명구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CONTENTS

- 05 발행인 메시지
모든 재난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합니다
- 06 역사 속 대한적십자사 - 기후재난 편
기후재난의 경고, 인도주의로 극복하다
- 08 RC 국내 리포트
달려가고, 지키고, 회복하다
- 12 RC 스페셜 리포트
인류의 편에서 함께합니다
- 14 RC 사람들
봉사 가문의 DNA는 다르다
- 16 RC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
기억을 잇는 마라톤, 미래를 향한 연대
- 18 RC 희귀병 환자 돕기 캠페인
살리고 싶어요, 우리 지호를
- 20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시대와 가족의 아픔을 넘어 이웃과 함께하는 내일로
- 22 RC 특별 인터뷰
우리가 잇은 기억,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
- 24 후원금 사용 보고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 25 함께하는 RC
생명의 빛, 희망지킴이 세호
- 26 최갑수의 여행
눈부시게 푸른 바다에 취하고 그윽한 예술 향에 반하다
- 28 일상 속 RC
시원하게! 안전하게! 즐기는 여름
- 30 RC News
지역별 적십자 소식
- 40 나눔이 희망입니다
나눔을 함께하는 분들
- 41 RC를 만나는 방법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 42 RC 후원자 코너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커버스토리

앞표지

1959년 9월 태풍 사라 피해 이재민 구호활동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급식지원 활동
2016년 9월 태풍 차바 피해 복구활동
2022년 3월 울진 산불 피해 긴급구호세트 지원

뒤표지

2023년 7월 충북 괴산 수해 피해 긴급구호활동
2025년 3월 경북 의성 산불 피해 긴급구호활동

RedCross media
생명을 지키는 희망 소식



채널 바로가기



웹진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소식지 RedCross

발행인 김철수 편집인 박종술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홍보팀(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전화 02-3705-3705 기획·디자인 엔자임헬스 주식회사



모든 재난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합니다

지난 5월 8일, 우리는 제79회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서 정한 올해의 슬로건은 “On the Side of Humanity(인류의 편에서)”입니다. 이는 정치, 종교, 인종, 국적을 초월해 오직 인류애에 기반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 191개국 적십자 가족이 하나 되어 인도주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적십자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120년간 수많은 재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과 함께해왔습니다. 대형 자연재난과 감염병 대유행부터 사회적 고립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까지, 적십자사는 한결같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전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구호 현장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재난구호, 혈액사업과 공공의료, 복지서비스와 RCY 청소년 교육까지, 대한적십자사의 모든 활동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또 다른 위기 앞에 선 계절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수해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재난대응팀의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모의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별 기후패

턴과 재난 취약성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 전략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호물품 지원체계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구호세트의 표준화와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호활동의 일관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사 간 구호품 지원 기준을 통합하고, 공급망과 물류체계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 기반의 재난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 적십자사는 어느 한 시기, 한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에 가장 먼저 손 내미는 것, 바로 그것이 적십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걸어온 우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에 강한 사회, 모두를 위한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촘촘하게 활동하며,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살피겠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구호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 철 수



기후재난의 경고, 인도주의로 극복하다

재난의 현장마다 달려간 대한적십자사의 활동

기후위기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산불,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키고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혼란과 절망의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처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이타의 손길로 생명을 어루만졌습니다. 위기에 응답한 이들의 발자취 속에는 적십자의 변함없는 인도주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비에 맞서 싸워낸 시간들: 경기 북부 집중호우

1996년 7월 중순, 철원군이 속한 강원도 일대에 이틀 동안 약 43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연천, 문산,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어 수십 명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긴급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봉사와 직원, 아마무선봉사회 등 구호요원을 투입해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한편, 급식 봉사 활동을 통해 총 4만 4천 명 분의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구호복과 담요, 가스렌지, 식수, 취사도구 세트 등을 긴급히 방출해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민통선 너머의 고립된 이들을 찾아서: 연천군 수해

1999년 8월, 경기도 연천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민통선 인근 마을들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북부 집중호우



연천군 수해

도로가 물에 잠기고 연락이 끊긴 채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군부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보트를 이용한 구호물자 수송과 인명 수색 지원에 나섰습니다. 일부 적십자 봉사원들은 트럭을 타고 물이 빠진 진흙밭을 지나 피해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호품을 전달했고, 험한 지형을 걸어서 이동하며 생필품을 직접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된 이웃에게 가장 먼저 다가간 이타의 발걸음은 생명을 향한 적십자의 응답이었습니다.

초강력 태풍의 흔적: 태풍 루사

2002년 8월 말, 제15호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릉에 하루 8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엄청난 재해 속에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사망·실종자와 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무료 급식소 15곳을 운영해 6만 5천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삼척에서는 직원 232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으며, 추석 당일에는 '사랑의 차례상'을 마련해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서울적십자병원과 적십자간호대학 소속 30여 명의 의료진은 470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적십자는 총 2만 4천 세대에 구호품을 전달했으며, 봉사원 1만여 명과 직원 1,400여 명 등 1만 1천여 명이 구호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리가 끊겨도 멈추지 않았다: 양양군 수해

2006년 7월, 양양군은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량이 붕괴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낙산사 진입 도로가 유실되며 문화재 피해와 함께 구조 작업에도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 와중에도 대한적십자사는 붕괴된 다리를 넘어 구호품을 담은 등짐을 메고 오르며 생명을 살리는 현장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긴급구호품 전달, 구호 급식, 세탁 봉사 및 복구활동 지원, 의료진 파견,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태풍 루사



양양군 수해

긴급구호에서부터 재난 심리 지원까지: 태풍 힌남노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가 남부 지역을 강타하며 포항, 경주, 울산에 폭우로 인한 산사태, 지하 주차장 침수, 하천 범람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시민 수십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특히 포항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고립된 주민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권역 지사 간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인근 6개 지사에서 구호장비, 이동 급식차량, 인력을 신속히 지원했습니다. 이재민을 위해 쉼터 210동과 긴급구호품 980세트를 제공하고, 이재민 및 복구 인력 1만 3천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주와 포항에는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심리상담가를 파견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주민을 위한 상담활동도 전개했습니다. ●



태풍 힌남노

달려가고, 지키고, 회복하다

경북 산불 현장 26일간의 긴급구호활동 기록



경북 의성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고,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화마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불안에 휩싸였고, 고립된 마을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것은 대한적십자사였습니다. 구호요원과 구호차량, 심리회복 전문가, 의료진이 함께 투입되어 불안에 떨던 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생명과 일상을 지키다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 3곳에서 강풍과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에 산림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등진 채 급히 대피했고, 중앙고속도로 일부 통제로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위기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경북지사를 중심으로 대구, 경남, 강원, 충북지사와 본사 인력까지 총동원된 이번 대응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직원, 구호요원, 봉사원 등 다양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이동급식차량, 재난회복지원차량, 이동식세탁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쉼터 117동이 설치되고, 6,920인분의 급식과 함께 6,884세트의 긴급구호물품이 즉각 배포되었습니다. 4월 16일까지 이어진 27일간의 구호활동에는 총 4,323명(직원 320명, 봉사원 3,803명, 활동가 200명)이 참여했으며, 총 11만여 점의 구호물품이 지원되었습니다(긴급구호품 1,970개, 비상식량 45세트, 담요 11,465개, 생수 21,600병, 쉼터 671동 등). 급식 112,710명 분, 세탁 583명, 샤워 35명, 회복 지원 610명 등 생활지원도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움직이는 심리상담실'이라 불리는 재난회복지원차량은 담요, 비상식량, 생수 등의 긴급구호물자 배분 장소이자 심리상담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이재민들의 불안과 외로움을 다독였습니다.

회복의 시작점, 적십자사의 재난 의료 지원

영주적십자병원은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시청사 대피소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고 긴급 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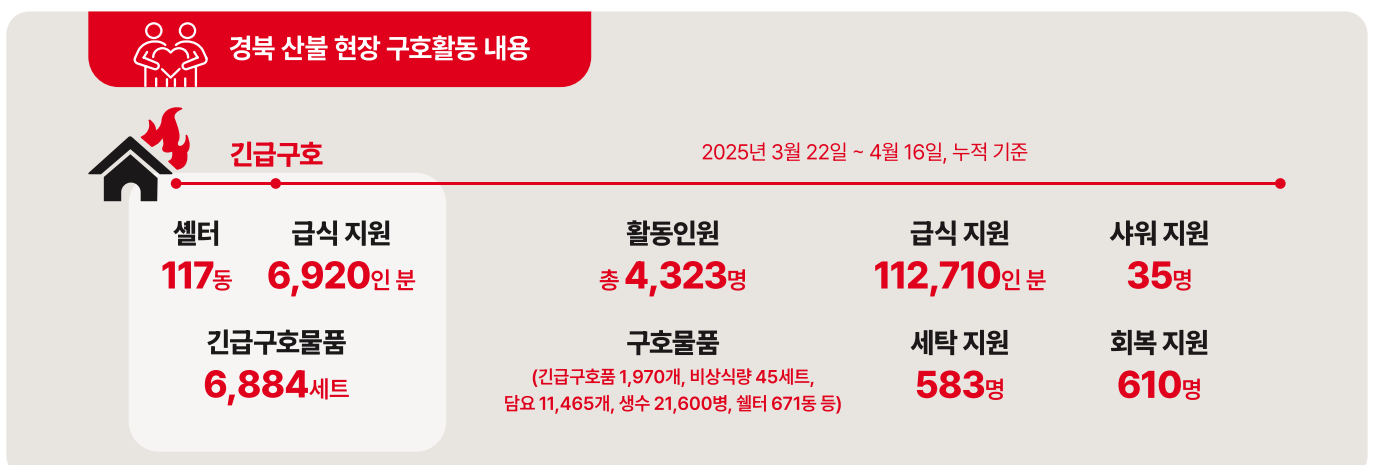
지원에 나섰습니다. 의사, 간호사와 행정요원으로 구성된 재난 대응의료팀은 화재 연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 외상자 응급처치와 고령층과 아동,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현장 건강 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긴급구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심리 지원'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은 4,58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인한 불면과 불안, 우울감 해소를 위한 노력은 물론 트라우마 호소자를 대상으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2025년 4월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재난대응의료팀(보건 의료 ERU)' 발대식을 갖고, 국내 재난의료 대응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보건의료 ERU는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긴급대응 조직입니다. 전국 4개 권역에 각각 1개 팀씩 총 4개 팀이 배치되어, 재난 유형과 지역 특성에 맞춘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료 대응을 펼칠 계획입니다. 재난 구호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기초 건강관리는 물론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상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단순한 응급 구조를 넘어 '회복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 의료 대응의 표준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인도주의 실천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안전 교육 프로그램

경북 의성 산불은 '예고 없는 재난'이 얼마나 빠르게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후위기, 대형 산불, 감염병,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일상이 된 지금, 시민 개개인의





대응 역량은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누구나 재난 상황에서 ‘첫 번째 대응자’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통합교육’은 화재, 수해, 지진,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학교,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폭넓게 제공됩니다. 상황별 대응 매뉴얼은 물론 실제 재난 발생 시 판단력과 행동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구호교육’은 재해 구호의 기초 지식과 구조, 응급처치, 인명구조, 심리응급지원 등 실무 중심의 실습 과정으로, 누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난 훈련, 아동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며,

재난에 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위기의 순간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문화의 확산이자 마음의 훈련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의 경계를 허물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들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 적십자 교육이 지향하는 인도주의입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함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회복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방에서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적십자의 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조천호(대기과학자,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

기후 변화와 지구 시스템을 연구한 대기과학자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원장을 지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탄소순환을 연구했으며,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로도 활동했다. 『파란하늘 빨간지구』 등 기후와 인류 미래를 주제로 여러 저서를 펴냈고, 현재는 기후 변화 과학과 지속가능한 삶의 연결을 탐구하고 있다.



기후재난, 님아 그 지뢰밭에 들어가지 마요!

인류는 더 이상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단순히 적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후 변화를 직접 일으키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수억 년에 걸쳐 생성된 화석연료를 태우며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약 1.25°C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도 기후는 변화해왔지만, 현재의 기후 변화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온 상승 속도는 공룡 멸종 이후 가장 빠른 자연적 변화 속도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는 기후 균형을 무너뜨려 시스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핵심은 단순히 기온 상승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양상은 당뇨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도 유사합니다. 당뇨병이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려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듯, 지구 온난화도 기후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려 치명적인 극한 현상을 빈번하게 유발합니다. 건디기 힘든 폭염,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거대한 태풍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과거(1940년 이전) 98일에서 최근 118일로 20일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각각 2배,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강수일수는 전 계절에 걸쳐 감소하고 있어, 비가 오면 폭우가 되지만 가뭄 또한 심화되는 불안정한 기후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곧 더 불안정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 식량, 거주 환경 등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C에서 2°C로 상승할 경우, 불과 0.5°C 차이로 해수

면 상승으로 집을 잃는 사람이 천만 명, 물 부족을 겪는 인구는 50%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불안정, 정치 갈등, 국경 분쟁, 난민 발생, 인종 청소 등으로 이어지는 파괴적 충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자연재난이나 감염병, 경제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문명 위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지속한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은 우리의 욕망보다 먼저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지구가 '열병'을 앓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1°C 오르면 이상을 감지하고, 2°C 오르면 병상에 눕게 되며, 3°C를 넘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듯, 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의 기후 정책대로라면 3°C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두려운 미래는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C 또는 2°C를 넘어서는 것은 점차 지뢰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현재보다 3~6배의 투자로도 1.5°C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존재해야 국가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방지하는 것은 "나는 지뢰밭에 계속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던 길에서 방향을 틀어 가능한 한 빨리 지뢰밭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먼저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망설임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

인류의 편에서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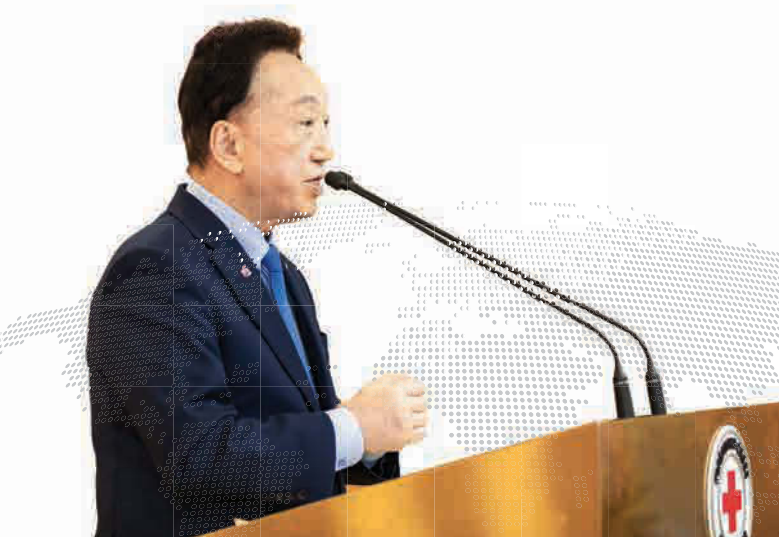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

On the Side of Humanity



2025년 5월 8일에 열린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은 ‘On the side of Humanity(인류의 편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적십자 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열렸습니다. 김철수 대한 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해 바바라 리졸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 대표, 봉사원, 후원자, 헌혈자, RCY 단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갈등과 재난 속에서도 적십자운동은 인류를 위한 길을 꾸준히 걷고 있으며, 현장 봉사자들은 변함없이 희망의 조끼를 입고 사람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 케냐에서 진행된 세계적십자의 날 캠페인



원칙 위의 실천, 인도주의의 미래를 향해

김철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봉사원, 후원자, 헌혈자 여러분 덕분에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하고, “올해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채택 60주년이자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다음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경남 산불 당시 국민 성금 500억 원을 바탕으로 한 신속 대응 사례는 인도주의 실천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바바라 리졸리 대표는 축사에서 “수단, 미얀마, 가자지구 등 분쟁 현장에서 많은 적십자 동료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럴수록 더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도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한 이들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

기념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헌신으로 인도주의를 실천해온 적십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올해의 적십자 봉사원상 대상 수상자인 박말순 봉사원, 최우수상 수상자인 박영옥·임옥희 봉사원,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된 손수애 봉사원 가족은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청소년적십자 강태호 지도교사의 수상도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19년 동안 청소년들에게 적십자의 가치와 나눔을 몸소 전해온 ‘인도주의 교육자’로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홍보 유공으로 선정된 강원석 홍보대사와 자원봉사자,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이 이어지며,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실천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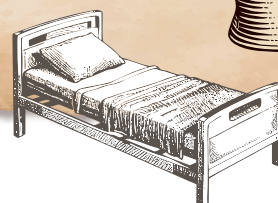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은 적십자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2025년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영상

세계적십자의 날 의미와 역사

1859년, 스위스 사업가 앙리 뒤낭은 이탈리아 솔페리노에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부상자들을 구호하며 인도주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을 통해 중립적인 구호 기구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는 1863년 제네바에서의 회의를 거쳐 국제적십자운동과 제네바 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전 세계 191개국의 적십자·적신월사는 앙리 뒤낭의 생일인 5월 8일을 ‘세계적십자의 날’로 기념하며 그의 인도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봉사가문의 DNA는 다르다

고모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적십자 봉사명문가'의 3대 이야기



대한적십자사는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에서
손수애 봉사원 가족을
'2025년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손수애 봉사원을 시작으로
아들 황형철 씨, 손자 황현서 씨까지
3대에 걸쳐 실천한 봉사시간은
총 3,497시간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엔 25년간
23,108시간 이상을
지역 곳곳에 헌신한
고모할머니 손옥자 씨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세대를 이어 실천된 이들의 나눔은
누군가에겐 삶의 희망이자,
또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봉사란 무엇인가'를
되물게 하는
따뜻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고모할머니, 한 집안을 '봉사의 집'으로 만든다

손옥자 씨는 25년간 23,108시간을 봉사한, 살아 있는 '봉사의 전설'입니다. 다문화가정, 재난구호,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참여했으며, 척수장애인을 위한 중식 지원, 휠체어 봉사, 여성장애인을 위한 목욕 봉사까지 묵묵히 실천해왔습니다. 달서구협의회 4대 회장으로 봉사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서문시장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 헌신은 수많은 표창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달서구청장, 대구시장,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에 이어 2021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한 그녀는, 지금도 봉사회 리더로서 후배 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도 봉사를 좋아해요. 놀러 가는 것보다 봉사하러 가는 게 더 즐거워요.” 손 씨는 조카 황형철 씨에 대한 고마움도 전했다. “우리 황 사장은 봉사나 후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도와줘요. 그런 마음이 참 고맙고 든든하죠.”





‘숨숨’했던 경험이 20년, 1,922시간 봉사로 이어지다

손수애 씨는 2005년, 고모 손옥자 씨의 권유로 적십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숨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좋더라고요.” 그는 20년간 아동청소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4세대와 희망봉사 결연을 이어오며, 대구보훈병원 세탁실과 안내 봉사, 거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 위한 중식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자녀와 손자들까지 봉사의 길로 이끌며, 명실상부한 ‘봉사 가문’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자 봉사원, 후원도 실천도 ‘든든’

아들 황형철 씨는 어머니와 고모의 뒤를 따라 2012년부터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경북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체 (주)광진상사를 운영 중인 그는 2020년부터 대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를 위한 ‘든든한 도시락’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조리와 배달에도 직접 참여하며, 실천하는 후원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눔은 도시락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의 빵 나눔, 지역아동센터 행사, 척수장애인 하계캠핑, 여성장애인 급식 지원, 교도소 음식 봉사 등 다양한 현장에 참여하며 나눔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입니다. “회사 매출 일부를 후원 예산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성장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광진상사는 2025년 2분기 ‘경산희망기업’으로 선정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반씩, 3대 청년의 봉사 본능

손자 황현서 씨는 형 황윤서 씨와 함께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봉사 현장을 누볐다고 전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게 된 거죠.” 성인이 된 지금도 두 형제는 ‘든든한 도시락’, ‘사랑의 빵 나눔’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무거운 짐은 도맡아 나르고 어르신 봉사자들을 든든하게 돕는 청년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취업 준비에 바쁘지만,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봉사하려고 해요.” 황현서 씨는 나눔을 당연한 삶의 일부로 여기며, 봉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문을 넘어 세대의 유산으로

세대를 잇는 봉사는 단순한 선행이 아닌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도시락을 함께 만들고, 반찬을 나르고, 안부를 전하는 이들의 일상엔 누군가에게 삶의 온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손수애 씨는 “열심히 하다 보니 상도 받고, 가족이 함께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꾸준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옥자 씨 역시 “나처럼 봉사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미래의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봉사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DNA니까요.” ●

기억을 잇는 마라톤, 미래를 향한 연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 마라톤으로 이어지다

5월, 봄비가 그친 뒤 서울 평화의공원에서는 서울신문 주최로 '2025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응원하는 연대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은 청년들, 손을 잡은 가족들, 손주들과 함께 나선 어르신들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1만 4천 여 명의 러너들이 5km, 10km, 하프코스 등을 달리며, 결승선을 향한 경주이자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오늘에 잇는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스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사업 전시를 비롯해 룰렛 이벤트, 네 컷 사진 촬영, 팝콘 배부, 적십자 캐릭터 '썬호'와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는 안내판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적십자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모든 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년들이 '독립'을 과거가 아닌 오늘의 이야기로 느끼도록 이끌었던 이 날의 발걸음은 광복의 가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연대의 정신임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존엄한 삶을 위한 노력

“건강한 사회는 그 사회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신념을 오랫동안 품어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양옥모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옥모 선생님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이어온 가문의 후손으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적십자 봉사원으로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소방관, 경찰, 군인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가족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의 책임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약 1만 7천 명이며, 이들의 직계 후손 중 상당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여성 후손은 건강 문제와 돌봄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국가보훈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후손 446명 중 약 3.4%는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며,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립의 대가로 희생한 이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존엄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암 및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월세·식료품 등 생계비 지원, 노후 주택 보수 및 위생·난방시설 보강을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자녀 학업비를 위한 장학금 지원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정기 후원자 모집과 긴급 기금 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후손들의 삶의 안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정기후원 방법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 후원금은 먼저 양옥모 선생님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금된 금액은 위기에 처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계비, 의료비, 장학금, 주거환경 개선 등에 순차적으로 활용됩니다.

| 정기후원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정기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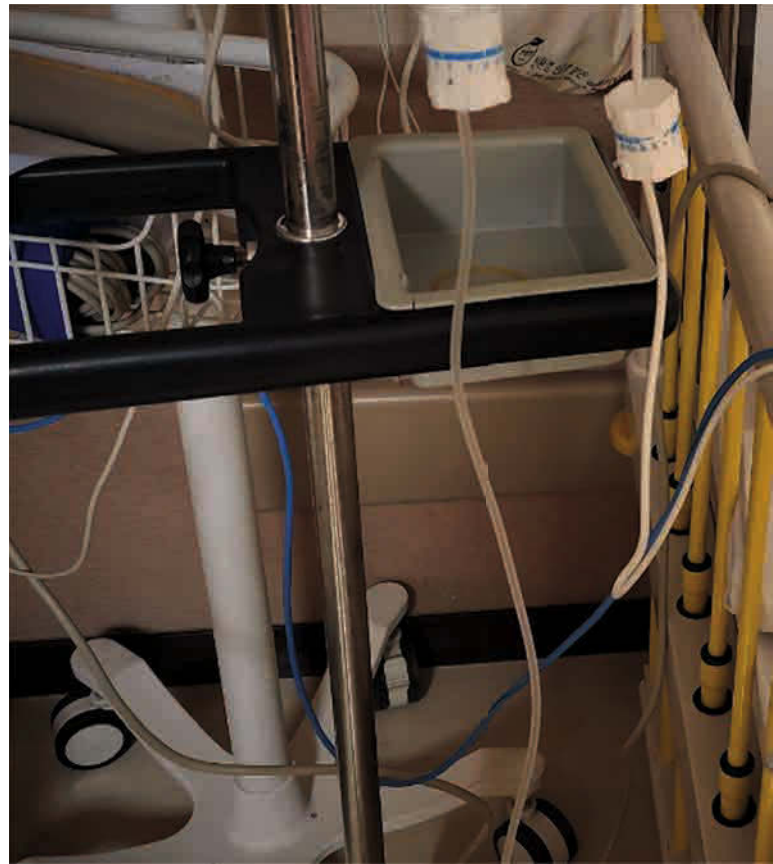
| 무통장 입금 | 기업은행 148-013356-01-151(예금주: 대한적십자사)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시 '성명+감사'를 기재해주세요.



살리고 싶어요, 우리 지호를

희귀병과 싸우는 13살 소년과 엄마의 이야기

“지호야, 우리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말을 못 하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도,
아들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엄마.
7년째 투병 중인 지호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엄마는 두 손으로
아들의 굳어가는 몸을 어루만집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살 무렵 ‘무뇌회증’이라는 희귀 질환이 발견되었고, 이후 경직, 발작, 호흡곤란 등 중증의 뇌병변 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이 질환은 근육이 굳어 손가락과 발가락이 뒤틀리고, 경기 시 호흡이 멈출 수도 있어 정기적인 치료와 집중 재활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으로는 생계 유지조차 힘들고, 수천만 원이 드는 치료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마 정숙 씨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라며 자책합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무거운 마음으로 지호의 마른 팔과 다리를 쓰다듬으며, 아들이 고통 없이 숨 쉴 수 있는 하루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7년, 지호의 병은 악화되고 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아이 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산소호흡기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계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요.” 말끝을 흐리는 엄마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지호가 밤마다 몸의 통증 때문에 깨고, 몸속 장기까지 굳어가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호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재활치료를 대부분 중단하면서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한 사이 병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숙 씨는 “아들이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조금씩이라도 반응해주는 그 순간이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누워만 있어도, 아들의 눈동자가 움직이기만 해도 엄마는 희망을 겁니다.

지호는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 가능성은 바로 여러분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정기후원은 지호가 다시 재활치료를 받고,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숨통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의 굳어가는 몸에,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지호네 가족에게 희망을 보내주세요.●



희귀난치병 환자 지호네 투병일지 영상

몸은 굳어가도,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호는 말을 할 수 없고, 음식을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13살이지만 몸무게는 20kg에 불과하며, 고관절 탈구와 척추측만기 심해 온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경직된 손과 발은 점점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최근 들어 경기의 빈도도 늘고 있습니다. 의사는 산소공급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치료비와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가정 형편에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정숙 씨는 “지호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을 땐 조금씩 눈도 맞추고, 제게 손을 뻗으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치료만 꾸준히 받을 수 있다면 지호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달 12만 원의 월세조차 벅차지만,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에는 지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성치 않은 몸으로 치료비를 마련하는 아버지도 함께 있습니다. 본인의 당뇨 합병증과 백내장을 견뎌가며, 지호를 지키기 위해 일 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지호 돕기 정기후원 방법

정기후원금과 일시후원금은 지호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재활, 산소장비 등)에 우선 사용되며, 시급한 생계, 주거비 등에 지원됩니다. 이후 모인 후원금은 지호와 같이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긴급지원에 사용됩니다.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1005-002-719129
(예금주: 대한적십자사)

입금자명 | 성명+지호

온라인 후원 | 홈페이지 접속
www.redcross.or.kr

위기가정
긴급지원

지호 돕기

후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 후원 콜센터(유료)
☎ 1577-8179

시대와 가족의 아픔을 넘어 이웃과 함께하는 내일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회원 297호 양한중 님(아내 이연미 님)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제 그 도움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 살아낸 양한중 씨의 기부는 가족과 조국, 그리고 사람을 향한 애뜻한 책임의 표현입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새로운 후원자로 참여한 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월북, 가족의 비극 그리고 가장의 책임

양한중 씨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와 회복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고 조선신탁은행 대전 지점장을 지낸 그의 아버지는 1947년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월북했고, 그날 이후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열한 살이던 양 씨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고, 판잣집 단칸방에서 멀건 비지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이북형마저 월북하고, 두 명의 어린 동생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양 씨는 동생들의 주검을 헛 가마니에 싸서 뒷산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살에 상경해 방산시장 인근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이후 다방을 운영하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던 그는 1970~80년대 서울 중구에서 클래식 연주 주점 '산수갑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산수갑산'은 그에게 삶의 탈출구였던 동시에 나눔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자선음악회를 꾸준히 열며 불우이웃 돕기에 힘썼습니다.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며 사업가로 성공한 뒤에도 그의 나눔은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기부를 비롯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후원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았기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누군가의 덕분”이라는 말처럼,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받은 도움을 되갚고자 애써왔습니다.

형과의 극적인 상봉, 그리고 나눔의 실천

2000년, 그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월북했던 큰형 양한상 씨를 만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병석에 계시던 노모는 아들을 향해 “왜 이리 늦었느냐”, “가지 마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오열했고, 온 가족은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양 씨의 거실 한가운데에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3년, 그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를 통해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기부하며,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이 찢어졌기에, 탈북민을 돕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작은 속죄”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5억 원은 통일부 하나원 수료생 700여 명에게 지원금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국립암센터에 2억 원을 기부해 암환자 치료 환경 개선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희망이 되도록

2025년 6월, 양한중 씨는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역사와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너진 가족사를 지닌 그는, 이제 독립운동의 뜻을 계승한 후손들을 돕고자 나섰습니다.

“나는 재벌도 부자도 아니지만, 많은 도움 덕분에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 어린 다짐이자 세상을 향한 고백입니다. ●



우리가 잊은 기억,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 특별 인터뷰

권경석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회장

정정웅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

▼ 왼쪽 권경석, 오른쪽 정정웅



기억에서 외면된 피해자들, 한국의 원폭피해자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유발한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3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한국인 피해자는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 등 총 7만 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원폭피해 생존자는 1,605명입니다.

원폭피해 1세대 정정웅 씨는 1940년대 초, 군수공장으로 강제 동원된 부모님과 함께 일본 히로시마로 이주해 다섯 살 무렵 원폭 투하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가족 모두 집 안에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사했죠. 어머니 품에 안긴 채 피란을 가던 중 새까만 하늘에서 내린 낙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귀국 후 정 씨는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살아갔고, 훗날 서울시 버스 노조 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또 다른 원폭피해자를 만나 자신 역시 피해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안내로 일본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하고, 건강검진 등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서울지부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고국으로의 늦은 귀향, 사할린동포의 삶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 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과 그 가족들로, 일본 패망 후 4만 3천여 명이 사할린에 남겨졌습니다. 한·러 수교 이후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한 영주 귀국자는 현재까지 약 5,300명이 귀국해 안산, 인천, 김포, 파주, 원주, 청주, 천안, 부산 등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권경석 씨는 1942년 사할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흑한과 전 시 배급 속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여긴 임시 거처일 뿐, 우리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2009년 12월,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해 파주 문산에 정착했습니다. “귀국 당시 꽃무늬 벽지의 깨끗한 아파트, 준비된 쌀과 이불, 무엇보다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활동과 지속적인 과제

일본 정부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했지만,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1970년대까지 실태조사조차 없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90년 초 한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재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임받아 실태조사 및 복지지원을 시작했으며, 2024년 기준 총 4,403명의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지원, 원호수당 지급,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웅 씨는 “원폭피해 1세대와 그 후손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할린동포 지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961년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사할린동포 실태 파악을 위한 대표 파견을 요청하는 등 사할린동포 귀국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고, 1989년 일시 모국방문을 시작으로 1992년 첫 영주 귀국자 77명이 춘천 사랑의집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귀국자 역방문 사업, 2-3세 모국방문 사업과 더불어 2020년에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의 고통 경감을 위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감사, 미래를 향한 당부

정정웅 씨는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이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권경석 씨는 “나라가 없다는 건 부모를 잃은 아이와 같습니다.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라며, 그는 “모국의 땅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는 후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개인사를 넘어, 분단과 식민,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선 한국 현대사의 살아 있는 증거이자 교훈입니다. 그들의 삶이 존중받고, 그 기억이 사회의 의식 속에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함으로써, 평화의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후원금 이렇게 ‘잘’ 사용했습니다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 지원

원폭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목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수당 및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폭피해자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귀국자 역방문 및 2~3세 모국방문 등 가족 만남을 추진해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원호수당

19,662건(87억 원)

장례비

114건(2억 원)

진료비

79,118건(79억 원)

진료보조비

20,292건(20억 원)

합천복지회관 운영

65명



합천·부산지역 거주
원폭피해자 건강상담

285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개최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영주귀국

254명

귀국자 역방문

247명

2·3세 모국방문

64명

일시 모국 방문

1세 **53**명 / 2세 **10**명

인천복지회관 운영

76명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사업



임대주택 계약

종합건강검진 비용
상향 지원



국적 판정 신청

25 ▶ **35**만 원

생명의 빛, 희망지킴이 세호

? ? Q 세호는 누구인가요?

이름 | 세호(SAYHO: Saving Hopes)

특징 | 동그란 몸, 빨간 뺨, 사랑이 가득 담긴 큰 눈

시력 | 10.0(희망을 정확히 보는 눈!)

성격 | 다정하고, 정의감 넘치며, 호기심 많고, 항상 활기찬 성격

취미 | 응원하기, 함께 나누기, 웃음 주기

말버릇 | “세이~호!”, “사람을 살리는 일, 나랑 같이 할래요?”

홍보대사
캐릭터 세호



언제든,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세호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작은 몸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지만, 알고 보면 힘도 제일 센 독수리로 대한적십자사의 날쌔 구조대장입니다. 세호는 적십자의 재난구조, 헌혈, 봉사, 기부, 인도주의 교육에 동행하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용기 있는 응원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호는 자신의 날갯짓이 희망이 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초긍정! 밝은 성격! ‘희망의 아이콘’ 세호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호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너란과 나란은 세호와 항상 함께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작은 알이라 무엇으로 태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덕분에 무궁무진한 미래와 희망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아주 작은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있어 세호가 날아갈 때 머리 위에 앉아 길잡이 역할도 합니다.●



눈부시게 푸른 바다에 취하고 그윽한 예술 향에 반하다

통영을 찾았다.
바람은 잔잔했고 바다는 배부른 고양이처럼 순했다.
통영에 있는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넉넉하고 평안했다.
마른 오이처럼 오그라들었던 마음은 반듯하게 펴졌고
날카롭게 날이 섰던 정신도 한결 누그러졌다.

동백 따라 달리는 해안드라이브

서울을 빠져나온 지 네 시간. 통영에 들어서자마자 충무대교를 넘어 미륵도로 향하는 산양 일주도로에 올랐다. 달아공원과 해양수산과학관, 충무 마리나 리조트로 이어지는 이 길은 국내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해안도로다.

길은 심전도 눈금이 요동치듯 오르락내리락한다. 한 허리를 꺾어 돌면 아담한 포구가 나타나고, 다시 고갯길을 넘으면 푸른 바다가 눈앞에 열린다. 산양읍으로 접어드는 갈림길에서 다시 오른 쪽으로 돌면 통영만 달아공원이다. ‘달아’라는 이름은 이곳 지형이 코끼리 엉금리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졌다. ‘달구경 하기 좋은 곳’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한다. 공원 입구 도로변에 마련된 주차장에 차를 대고 5분 정도 완만하게 뒀인 공원길을 올라가면 관해정이라는 정자가 나오는데, 이곳에 서면 이름을 갖지 못한 작은 바위섬에서부터 재도, 저도, 송도, 학림도, 곤리도, 연대도, 만지도, 옥곡도, 추도 그리고 멀리 육지열도까지 수십 개의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김춘수 시인은 언젠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바다가 없는 곳

에 사는 것은 답답하다. 바다가 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고향 바다는 너무 멀리 있다. 대구에서 20년이나 살면서, 서울에서 10년 넘어 살면서 나는 자주자주 바다를 꿈에서만 보곤 했다. 바다는 나의 생리의 한 부분처럼 되었다. 특히 통영 앞바다, 한려수도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한다.”

미륵산 정상에서도 통영 바다를 잘 볼 수 있다. 미륵산의 높이는 해발 461미터. 그다지 높은 산은 아니지만 풍광은 1000미터급 이상의 산 못지않게 화려하다. 케이블카(통영관광개발공사)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다. 통영 출신 시인 이항지는 미륵산에서 내려다본 다도해 풍광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륵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 풍광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동해처럼 광활하고 거친 힘이 아니라, 서해의 갯벌 앞에서 느낄 때 같은 막막함이 아니라, 수면 위에 떠 있는 무수한 섬, 올망졸망한 섬들을 둘러싼 물안개로 인해 더욱 느끼게 되는 부드러움이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경남적십자사 희망나눔 사업장 5950호점으로 도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정기후원하고 있다.**

예술가의 고장, 통영

통영의 눈부신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이뿐일까. 봉평동의 전혁림 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한국 추상화의 대가로 꼽히는 전혁림 화백은 통영에서 나고 자랐다. 미술학교 한번 변변히 다니지 못했지만, 미국의 한 미술 잡지에서 한국 10대 화가로 꼽기도 했다. 전혁림 미술관은 전혁림 화백의 작품 70여 점을 전시한 곳. 건물 외벽의 타일은 전 화백의 그림을 기초로 디자인했는데 연한 하늘빛부터 검푸른 빛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푸른빛이 인상적이다.

그의 그림을 보다 보면 온통 푸른색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통영 바다의 강력한 푸른색이 그를 사로잡았으리라. 전 화백은 전시관의 한 게시물에 “통영 앞바다는 저 멀리 스칸디나비아나 지중해, 알래스카에서 밀려온 파도가 아닐까 싶었다”라며 “내 그림에 나타나는 파란색의 이미지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써놓았다.

통영에 왔다면 청마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남망산公園으로 오르는 입구에 그의 시 깃발이 세워진 시비가 서 있다. 통영 시내의 청마거리도 돌아보자. 청마 유치환과 정운 이영도의 애절한 러브스토리가 스민 곳이다. 청마는 통영우체국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서 정운 이영도에게 연서를 썼다. 건너편 이층집은 정운이 살았던 곳. 사모하는 연인의 집이 바라보이는 우체국에서 편지를 쓰는 청마의 마음은 얼마나 애달팠을까. 그 마음만큼이나 붉은 우체통이 우체국 정문 앞에 놓여 있다.

“사랑하는 것은/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구나/오늘도 나는/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너에게 편지를 쓴다”

망일봉 청마문학관에는 청마 흉상과 빛바랜 육필원고, 유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청마문학관 뒤편에는 청마 생가도 복원돼 있다.

서호시장 건너편에 통영적십자병원이 자리한다. 통영적십자병원은 1950년대 후반 또는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되어 도서 및 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로 기능하며 도서 주민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진료 활동에 매진했다. 물론 지금도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바다가 차린 산해진미

통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시락국(시래깃국)이다. 시락국은 장어머리를 고아낸 국물에 된장을 풀고 무청을 넣어 끓여내는데, 산초(제피)가루와 김가루, 잘게 썬 고추와 부추무침을 먹는 사람 입맛대로 넣는다. 뜨끈한 국물이 맵싸한 산초가루의 향과 어우러져 시원한 맛을 낸다. 통영에 갔는데 충무김밥을 먹지 않는다면 서운하다. 1960~70년, 부산과 여수, 거제 등을 오가는 배길의 중심지였던 통영 여객터미널에는 언제나 배사람과 상인들이 북적였고, 이들을 상대로 한 요깃거리는 늘 인기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충무김밥. 간단하고 상하지 않아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충무김밥은 맨김으로 썬 밥과 ‘속박김치’라고 불리는 무김치, 그리고 시락국이 전부다. 짬뽕보다는 시원한 맛과 매콤한 맛이 우선인 속박김치는 사각사각 씹는 맛이 일품이다.●



최갑수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작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 여행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기쁘게 하고 사랑을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 이순간도 여정이 여행 중이다.

@ssuchoi

시원하게! 안전하게! 즐기는 여름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 강사가 알려주는
여름철 안전 가이드 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 강, 계곡, 수영장 등 물가로 떠나는 여름.
시원한 물속에서의 즐거움은 크지만,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 수온 차이로 인한 심정지, 구조 미흡 등이 반복되며
매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즐거운 물놀이는 철저한 준비와 안전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름 물놀이의 복병!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1~2023
년 여름철 익수 사고의 절반 이상은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입수 전 준비운동 부족, 구명
조끼 미착용, 음주 수영, 심장 이상 등이
꼽힙니다. 기온이 높아도 수온은 낮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체온 저하로 '익수 심정
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운
동 후 물에 들어가야 하며, 물 깊이가 급
변하는 계곡 등에서는 절대 다이빙을 피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의
팔이 닿는 거리 안에서 물놀이해야 하며,
튜브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구명조끼 착용 역시 필수입니다. 특히 무
리한 잠수는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자
제해야 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비운동	다이빙 금지	
 입수 전, 체온 적응을 위한 준비운동 필수	 수심이 불명확한 곳 또는 계곡에서는 다이빙 금지	
보호자 거리 유지	구명조끼	잠수 자제
 어린이는 보호자의 팔이 닿는 거리 안에서 활동	 튜브만으로는 부족, 구명조끼 착용하기	 무리한 잠수는 위험하므로 반드시 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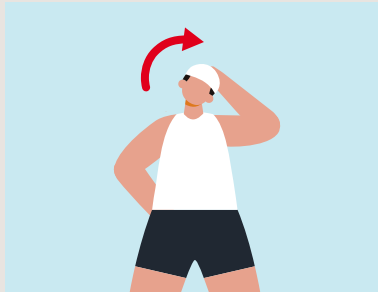


안전한 물놀이, 꼭 기억하세요!

물놀이 전에는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서서히 높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냉수 접촉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수온을 손이나 발로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 실력과 무관하게 구명조끼 착용은 익수 사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음주 후에는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져 매우 위험하므로 수영을 절대 삼가야 하며,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물 밖으로 나오거나 구명조끼를 입은 채 구조를 기다리세요. 사고 발생 시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의식·호흡 확인 후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법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 강사가 알려주는 물놀이 전 스트레칭



한 손으로 머리를 옆으로 살짝 눌러 목 옆근육을 늘리는 동작입니다. 경직된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 목 부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손을 허리에 올리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며 옆구리를 늘리는 동작입니다. 옆구리 근육을 풀어주며 허리 유연성과 복부 안정성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반대쪽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발목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하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한쪽 무릎을 90도로 세우고 반대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은 자세에서 체중을 앞으로 실으며 고관절을 늘리는 동작입니다. 엉덩이,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며 균형감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 강습 안내

대한적십자사는 1953년 국내 최초로 수상안전법 강사강습회를 시작한 이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수상사고 예방에 앞장서왔습니다. 미국적십자사와 협력해 교재를 도입하고 강사 재교육을 실시했으며, 인명구조원 양성, 강습회 개최, 시범 및 경연대회를 통해 국민의 수상안전 의식을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31만 명을 교육했으며, 전국 23개 조직에서 1,200여 명의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교육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강습 과정을 선택하면 전국 지사 및 재난안전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상안전 일반과정

수상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8시간)

>> 인명구조요원 과정

수영장, 해수욕장 등 익수자를 구조하는 방법과 기술 습득(48시간)

>> 수상안전 강사과정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는 강사로서의 자격 취득(60시간)

서울지사



다문화가정 여성 지원 다같이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서울지사는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다같이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다같이학교'는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서울 서부봉사관에 모인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연간 일정 안내를 받고 '다름 속 어울림 가족 되기' 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입학한 44명의 여성들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총 13회의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지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값진 걷기 '2025 함께 걷자, Green Light'

인천지사는 5월 17일 인천대공원에서 '2025 함께 걷자, Green Light'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이어져온 나눔 걷기 행사로 체험 부스, 나눔 걷기, 나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족과 함께 온 고우리(36.여) 씨는 "각양각색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도 만족하는 것 같다.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의영 인천지사 회장은 "지난해까지 5만여 명의 인천시민이 동참해 3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었다"고 전했다.

울산지사



꿈을 향한 열정! 나눔을 향한 희망! 적십자와 함께!

울산지사와 울산 HD FC는 4월 5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봉사원, 헌혈자, 후원자, 소방공무원 등 3,800여 명을 초청해 '제7회 Red Cross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주의 이념을 널리 보급하고, 스포츠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축구 관람 기회를 제공해 삶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안전교육부스 등 RCY 단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경기지사



2025년 경기 RCY합동입단선서식 개최

경기지사는 5월 31일, 용인 에버랜드 극장 일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경기RCY 합동입단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RCY 단원들에게 인도주의 정신과 단체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초·중·고교 및 대학 RCY 단원과 지도교사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RCY! 새로운 120년을 향해 날아오르다!"라는 슬로건 아래 합동입단선서식, RCY 백일장, 게릴라 미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전북지사



전주완산구협의회, 취약계층 400세대에 사랑의 누룽지 전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주완산구협의회는 5월 13일 '사랑의 누룽지 나눔' 행사를 통해 결연세대 61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 400세대에 간편 조리가 가능한 누룽지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회원들이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을 직접 찾아가 누룽지를 전달하고 안부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식사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조리 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전주완산구협의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광주·전남 지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적십자 무료급식소 개소

4월 15일,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봉사관 '적십자 무료급식소'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개소식을 통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결식 가구 감소를 위해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는 독거 노인층, 노인 단독 세대와 돌봄 세대를 대상으로, 매주 화, 목(11:30~12:30)에 밥, 국, 반찬(5종)으로 구성된 중식을 제공한다. 또한 적십자 봉사회와 연계해 식사 전 치매예방 스마일힐링체조, 핸드메이드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북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구호활동 전개

경북지사는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26일 동안,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등 경북 산불 피해 지역 5곳에서 이재민 및 진화요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봉사원 2,686명과 함께 긴급구호세트 769세트, 일시구호세트 3,186세트, 쉼터 473개, 담요 10,840장, 생수, 간식류 등 구호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총 82,780인분의 구호 급식, 사위 차량 현장 지원, 약 1,000kg의 이불·의류 세탁, 총 467건의 재난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경남지사



일시대피자 위한 경남형 재난안전꾸러미 제작

경남지사는 4월 23일, 경남도와 함께 각종 재난으로 단기간 대피한 일시 대피자들을 위한 '재난안전꾸러미' 1천 세트를 제작했다. 사흘 이상 대피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기존 응급구호세트 대신, 하루이틀간 대피자에게 필요한 구호품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치솔, 치약, 비누, 샴푸, 담요, 수건, 양말, 에어베개, 화장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안전꾸러미'는 지자체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최초로 제작한 일시대피자용 재난구호품으로, 경남도가 기획해 예산을 지원하고 경남지사가 제작·보관·배송을 맡는다.



**KT소닉붐
레드크로스데이 개최**

3월 16일 대한적십자사는 프로농구팀 KT 소닉 붐과 함께 창립 120주년 기념 ‘레드크로스데이’를 개최했다. 위기 가정을 위한 특별 기금 모금 부스가 마련된 가운데, KT 선수들은 아이프 칠드런(AiF Children)이 재능기부를 통해 디자인한 120주년 기념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경기 시투에는 적십자 홍보대사인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참여했으며 경기 중 적십자 퀴즈 타임, 마스크트 세호와 Y슈팅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대한적십자사·넥슨
사회공헌 협약식 개최**

대한적십자사는 넥슨과 4월 14일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회공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블루 아카이브’를 통해 나눔과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기획된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공익 메시지 전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정무 넥슨 사업부사장은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소브라이프
RCY홍보대사 위촉식**

대한적십자사는 5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에서 4세대 대표 걸그룹 ‘키소브라이프’를 청소년적십자(RCY)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소브라이프’는 앞으로 RCY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인도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과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서 멤버 벨은 “RCY의 홍보대사가 되어 기쁘다.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지사



**LG생활건강 후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보급**

서울지사는 4월 12일 LG생활건강과 함께 청소년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야, 웃자!’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담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수진과 현직 중학교 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LG생활건강은 7년째 20억여 원의 기부금을 서울지사에 전달하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뷰메드 서정길 대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

5월 28일 (주)뷰메드 서정길 대표가 서울지사 아너스클럽 26호에 이름을 올리며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은 적십자사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서정길 대표는 “국내의 사업을 통해 주어진 과실의 일부를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작은 나눔이 많은 곳에서 정성으로 모이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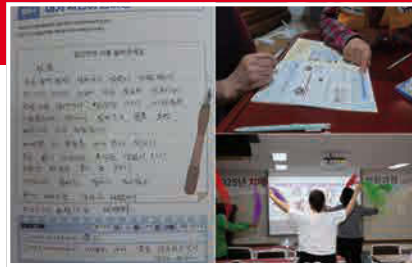
**동화약품, 할명수 127주년 기념판
판매 수익금 전달**

4월 15일 동화약품은 네팔 지역 주민들의 깨끗한 식수 제공과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할명수 127주년 기념판 판매 수익금을 서울지사에 전달했다. 동화약품 김대현 마케팅팀 전무와 이택기 홍보팀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동화약품의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 2천만 원도 전달됐다. 동화약품은 할명수의 브랜드 의미를 담아 매년 진행되는 기념판 판매 수익금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 인도주의 리더, 부산에서 첫걸음을 내딛다

부산지사는 5월 10일 부산적십자사회관에서 RCY 합동입단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RCY 단(회)원 370여 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RCY 지도자들이 참석해 인도주의 정신 실천을 다짐했다. 올해는 14개 조직이 신규 결단되어 RCY의 발상지인 부산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우수단원과 지도자 표창도 진행돼 분위기를 더욱 빛냈다. RCY는 청소년들이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 걱정 없는 부산, 적십자가 함께합니다.

작년 전 직원 및 봉사원들의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로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부산지사에서 올해 4월 노인건강체조 지도자 양성 심화 과정 운영을 통해 10명의 지도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6월 건강체조교실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활력을 북돋는 한편, 세호를 활용한 치매 예방 컬러링북을 제작해 정서적 지지를 나누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은 “시를 적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이 시간이 가장 따뜻했다”고 활동 소감을 전했다.



사람과 동물, 생명 앞에 차별 없는 적십자

부산지사 해운대구협의회에서는 5월 27일, 유기동물 보호와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협의회 봉사원들은 잡초를 제거하고 배변장을 청소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송경애 협의회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실천하며 생명에 대한 인식도 더 깊어지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게 됐다. 적십자를 통해 그 가교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전했다.



대구 함지산 산불 피해 지역 구호활동

대구지사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북구 함지산 산불 피해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총 4일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및 이재민 대피소에 적십자 직원 및 봉사원 290명을 파견했으며, 이재민 대피소에 긴급구호세트 725개, 담요 200개, 재난구호선텐터 281개를 지원했다. 또한 재난구호식차량을 이용해 산불 진화 인력 및 이재민을 대상으로 2,280인 분의 구호 급식을 지원했다.



치매 안심 ‘시니어 놀이터’ 운영

대구지사는 5월 28일, 두류공원에서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놀이터’를 운영했다. ‘시니어 놀이터’는 노년층 대상의 놀이 참여형 부스로, 퍼즐 맞추기, 돌 블록 쌓기, 숨은 그림 찾기, 컬러링북 색칠하기 등 어르신의 성취감 고취와 기억력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치매 예방 놀이 지도사 자격을 소지한 적십자 봉사원이 활동에 참여해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실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지사는 5월 7일, 대구시 수의사회와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반려동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지원, 유기동물 보호 시설 운영 지원,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구시 수의사회는 “어려운 생계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돌보는 돌봄 취약계층에 양질의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유기동물의 복지를 위해 함께 힘을 쓸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지사



식목일 맞아 '봄비 속 나무 심기'

인천지사는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수도권 매립지에 소나무 1,400그루를 심는 식목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의영 인천지사 회장과 인천RCY위원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상훈 상생본부장 및 임직원, RCY 단원 및 일반인 300여 명이 참여했다. 조의영 회장은 “비오는 날임에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식목일 정신을 되새겨 여러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전산업(주), 산불 피해 복구 위해 1억 기부

기전산업(주)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을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인천지사에 전달했다. 김종원 기전산업(주)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과 불철주야 애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적십자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 남동구에 자리한 기전산업(주)은 국내 최대 고철 가공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재활용 고철을 생산해 제강사에 공급하고 있다.



인천 관내 RCY합동입단선서식 개최

인천지사는 5월 17일 인천대공원에서 RCY 합동입단선서식을 진행했다. 인천시 39개 초·중·고·대 RCY 단원 및 지도교사 5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합동선서식에서는 신규 단원들의 단원 맹세와 RCY 활동 유공 학생 및 지도교사 등을 위한 표창 전달식을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조의영 인천지사 회장은 “RCY 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살피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울산지사



울주군 대형 산불 현장에서 구호활동 전개

3월 22일, 울주군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울산지사는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적십자 봉사원과 직원들은 4,600여 명의 진화소방인력을 대상으로 이동급식을 진행했으며,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쉼터를 설치했다. 또한 재난 피로도가 높은 이재민 대상으로 심리회복지원 상담을 지속했으며, 긴급구호세트를 전달하는 등 종합적인 구호활동을 펼쳤다.



울산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 나기 키트 제작

울산지사는 5월 28일 ‘시민 참여형 적십자 여름 나기 키트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혹서기 취약 지역 내 결연세대 660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 건강 관리에 필요한 생필품을 키트 형태로 포장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1365 봉사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울산 시민 29명이 활동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제작된 키트는 각 구·군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전달했다.



2025년 울산지사 명예의 전당 등재식 개최

울산지사는 4월 23일, 명예의 전당 등재자, 적십자 임직원, 봉사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순향 무거봉사회원이 1만 시간 이상 봉사자 명단에 등재되었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부문에 NH농협은행 (주)울산본부, NH농협은행 (주)울산영업부, 한국에너지공단, 5천만 원 이상 부문에 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울산제일새마을금고 등이 등재되는 등 총 62개처의 개인·기관 단체가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025 ESG 실천 캠페인 '야생화를 심다' 전개

대전·세종지사는 4월 25일, ESG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야생화를 심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상(주), (주)공영홈쇼핑, 하나은행, 롯데데미칼, (주)우성, (주)동원인앤씨 등 ESG 실천기업과 적십자 봉사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금낭화 등 토종 야생화를 심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전·세종지사는 2023년부터 매년 ESG 실천기업과 함께하는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토종 야생화 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목향로타리클럽, 대전세종지사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13호 가입

5월 20일, 대전목향로타리클럽이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대전세종 13호로 가입했다.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은 인도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이다. 대전·세종지사는 대전목향로타리클럽에 기념패를 전달하고, 지사 1층 '명예의 전당'에 등재했다. 지역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후원을 꾸준히 펼쳐온 대전목향로타리클럽의 기부금은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ESG 실천 캠페인 활동에 사용되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세종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보양식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세종협의회는 5월 23일, 대전·세종지사에서 '세계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취약계층을 함께하는 건강한 여름 나기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봉사원 40여 명은 정성껏 담긴 김치와 맛있게 끓인 삼계탕, 과일과 생필품을 세트 구성하고, 대전 지역 취약계층 가정 200세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들은 따뜻한 안부를 함께 전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사



포천 포탄 오발 사고 긴급구호활동 전개

3월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인명 피해와 가옥 파손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지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차량과 급식차, 직원 및 봉사원 등 약 170명을 긴급 파견해 현장 지원에 나섰으며, 3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1,363인 분의 급식을 제공했다. 또한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현장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총 40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심리지원 활동을 펼쳤다.



광명 지하철 공사 붕괴 현장에 긴급구호 전개

신안산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 사고 발생함에 따라 경기지사는 4월 13일 사고 현장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지원에 나섰다. 경기지사는 사고 직후 광명시민체육관과 충현중학교, 운산고에 쉼터 200개를 분산 설치해 이재민 수용 대비에 나섰으며, 응급구호세트 300개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적십자 직원 및 봉사원, 급식차량, 회복지원 차량을 신속히 파견해 사흘간 약 1,700인 분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장 대응을 이어갔다.



제63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 개최

경기지사는 5월 29~30일 양일간 소노캄 고양에서 제63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5개 지사 자문위원 400여 명이 참석해 전년도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도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에벤에셀의 집과 수원 나자렛집에 위문금을 전달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을 전했고, 주제 강연과 경기지사 홍보대사인 최정원 뮤지컬 배우의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전국 적십자사 최초 외국인 근로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강원지사는 3월 20일 홍천군 문화원에서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15개 시도 적십자사 중 강원지사서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CPR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은 총 19차시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입국한 홍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300명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사에 산불 피해 지원 구호금 2억 원 기탁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일,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강원지사에 2억 원의 구호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성금은 강원지사를 통해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주거 안정,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5·8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 사랑의 삼계탕 나눔

강원지사는 5월 8일 적십자봉사회 원주시협의 회와 함께 영서남부봉사관에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 관내 600세대에 삼계탕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적십자 봉사원들이 각종 영양 재료를 직접 구입해 정성을 다해 끓인 삼계탕을 가가호호 방문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주)석진산업, 충북 16번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

4월 23일 (주)석진산업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기업 및 단체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충북 제16호로 가입했다. (주)석진산업은 월 200만 원씩 50개월간 총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번 가입으로 충북 지역 기업 16곳과 개인 14명 등 총 30개처(명)이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과 함께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 이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최병윤 (주)석진산업 대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봄맞이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정 더해

충북지사는 5월을 맞아 사옥 앞에서 농협은행 충북지역본부의 후원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는 겨울철 김장 김치가 떨어져가는 취약계층의 식단에 풍성함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봉사원, RCY단원, 임직원 등 200여 명은 직접 담근 김치 6,600kg(세대당 배추김치 5kg, 총각김치 5kg)을 희망봉사자 660세대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눴다.



충북 대학RCY, 벚꽃 플로깅으로 무심천에 깨끗함을 더하다

충북 대학RCY회원 80여 명이 벚꽃 축제가 열린 4월 5일 청주 무심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대학RCY회원들은 '눈으로 벚꽃 보기, 손으로 쓰레기 줍기' 슬로건을 내걸고 벚꽃 구경 인파로 북적이는 무심천 일대와 푸드트럭 축제 존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유나영 대학RCY 충북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큰 축제에서 의미 있는 캠페인을 홍보하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차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상시국내재난대응팀 '충남 S-NDRT' 출범

충남지사는 3월 천안직접자봉사관에서 '충남 S-NDRT(Standby-National Disaster Team)'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남 S-NDRT'는 관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 초동조치를 실시하는 상시국내재난대응팀으로, 구조활동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황반, 현장지원반, 의료반, 심리상담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국 지사 중 충남지사에서 최초로 출범한 '충남 S-NDRT'는 재난교육과 구호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향후 충남지역의 중·대형 재난현장에서 안정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남지사, 나눔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남지사는 충남자원봉사센터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 국제로타리 3620지구 및 3680지구와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문은수 충남지사 회장은 "앞으로 각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CY 제정 제62회 스승의 날 기념식 성료

충남지사는 5월 10일 강경여자중학교에서 RCY 제정 제62회 스승의 날 기념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동행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958년 강경여고 JRC에서 시작된 스승 존경운동을 계승해, RCY 단원과 지도교사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념식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제동행 화합의 장, 존사애제 감사 꾸러미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지사 RCY 단원 및 지도교사 등 내빈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지사



최이결 양 가족, 자녀 생일 기념 100만 원 기부

3월 24일 최이결 양(4세)의 생일을 맞아 최 양의 부모가 어린이 환우들을 위해 전북지사에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만난 또래 아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던 이결 양의 가족은 딸의 생일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날로 보내고자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결 양의 아버지는 "투병중인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을 통해 환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 중앙고 RCY, 다문화가정 위한 '응급처치 달력' 900부 제작

4월 2일 군산 중앙고등학교 RCY 단원 30명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응급처치 달력' 900부를 제작해 주요 다문화지원기관(군산가족센터, 전주시 다문화지원센터, 사단법인 착한벗들)에 전달했다. RCY 단원들과 지도교사는 다문화가정이 위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번역해 달력에 수록했다. 또한 피싱 범죄, 덤페이크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 정보도 함께 담아 실용성을 높였다.



칠보고 RCY, 지역주민과 함께 재난안전체험캠프 개최

전북지사는 5월 30일 칠보고등학교에서 RCY 단원 18명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RCY 재난안전체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RCY 4대 활동목표 중 하나인 '안전활동'을 체험하고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재난 유형별 예방 및 대응 교육, 쉼터 및 비상식량세트 체험, CPR 실습 등의 활동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일상 속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소외계층 아동 위한 '러브백 캠페인' 참여

광주·전남지사는 4월 28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광주광천점이 립레츠·치즈필라프 세트로 구성된 러브백 60개를 광주 지역 소외계층 아동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천점은 광주 지역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대표해 러브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광주·전남지사와 협약을 체결해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해왔다. 러브백은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을 통해 발굴된 아동센터 12개소에 전달되었다.



국립 5·18 민주묘지 환경정비 봉사활동 실시

광주·전남지사는 5월 14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에 참여한 200여 명의 봉사원들은 오월 영령을 기리는 참배의 시간을 가진 후 비석 닦기 및 조화 교체 활동을 전개했다. 이재성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영령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지사는 매년 5월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 광주·전남지역 RCY 합동입단선서식 개최

광주·전남지사는 5월 광주, 순천, 목포, 여수 일대에서 RCY 단원과 지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합동입단선서식 및 스승의 날 기념 봉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표창 행사에 이어 단원들은 RCY 홍보영상 시청과 단원 맹세를 통해 지난해 활동을 돌아보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켰고, 지도교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존경과 사랑을 전달했다. 행사 이후에도 환경 캠페인과 헌혈 캠페인 등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허미미 선수,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 홍보대사 위촉

경북지사는 3월 12일, 허미미 유도 국가대표 선수와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허미미 선수는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며, 허아영 바이올리니스트는 소풍음악대학교 석사 출신으로 현악 4중주팀 '온파르텐'을 이끌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전반에 직접 참여하며, 고통받는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주)금복주,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5억 원 기부

3월 31일, (주)금복주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동구 (주)금복주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전달된 성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금복주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20억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금복문화재단을 통해 누적 255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해왔다.



경북 대학RCY, 경북 산불 이재민 생필품 꾸러미 지원

경북 대학RCY회원 40여 명은 4월 12일, 안동 다목적체육관에서 66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를 제작해 산불 피해 이재민 150세대를 지원했다. 로션, 손톱깎이세트, 구급키트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꾸러미는 경북RCY위원회의 기부금 300만 원을 포함한 산불 피해 돕기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회원들은 이재민 가정에 꾸러미와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전달하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어르신들을 살피는 한편 이동세탁차량을 이용한 세탁봉사, 분리수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산청·하동 대형산불
긴급구호활동 전개**

경남지사는 3월 21일부터 산청군·하동군에 10일간, 4월 7일부터 하동 옥종면에 3일간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 1,068명이 파견되어 급식 24,800인 분, 긴급구호세트 1천 개, 재난 심리상담키트 687개, 담요 700장, 쉼터 200개를 제공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576명을 대상으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창원상공회의소,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온정의 손길**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3월 31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박완수 도지사에게 경남지역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성금 총 1억 5,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창원상공회의소 최재호 회장을 비롯해 박정우·이년호 부회장 등 상공의원과 박희순 경남지사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해당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지역의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 당국을 위문하고자 창원상공회의소와 23개 회원사가 뜻을 모아 마련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산불 성금 전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가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약 8천 9백만 원을 경남지사에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은 경남도청에서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박창숙 중앙회장,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 박희순 경남지사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회 회원들과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제주지사, 2025년 재난구호
종합훈련 개최**

제주지사에서는 5월 28일 제주시 구좌체육관에서 적십자 봉사원, 동부소방서, 제주자치경찰단, LG유플러스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도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개최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100mm 이상 극한 강우 및 규모 5.7 지진 발생으로 인한 복합 재난 발생을 가정해, 이재민 발생에 따른 구호 및 복구 활동을 통한 봉사원 역량 강화 실천형 훈련을 진행했다.



**2025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제주지사는 5월 17일 제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김광수 교육감, 한권 도의원, 김태한 前제주도지사,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 등 내외빈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 제주사랑 자선 만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1걸음에 1원씩'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회 참가자들은 사라봉을 걸으며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을 즐겼다. 또한 제주에 진흥 발전을 위한 예술인 공동체인 제주어테우리가 특별공연을 진행했다.



**희망풍차 결연가구
마늘장아찌 밑반찬 지원**

제주지사는 4월 2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주시지구협의회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 400가구에 마늘장아찌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 김장 김치 이후 부족해진 밑반찬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동한 춘강 이사장이 기탁한 오보수월 적십자봉사자기금에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1천만 원을 기반으로 실시됐다.

대한적십자사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생생한 활동 소식과 다채로운 이야기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RedCross〉소식지를 만나 보세요!



대한적십자사는 연 4회 <RedCross>를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RedCross> 웹진 구독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독 시 연간 제작비와 발송비가 절감되어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
신청하기



적십자 콜센터

1577-8179
(유료)

후원자라면 정보 최신화하기!



<RedCross>를 이미 받고 있던 후원자라면 회원 정보 최신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우편물 발송을 줄이도록 도와주세요. 같은 주소로 여러 권의 소식지를 신청한 경우 한 주소당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 더 많은 위기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 02-3705-3754로 문의

〈RedCross〉2025년 봄호 독자 의견

‘생명이 위급한 순간, 달려가는 사람들’ 기사를 읽고 한동안 잊고 있던 여러 참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붕괴, 침몰, 화재 같은 끔찍한 사고 속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다잡게 했어요. 그런 분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양은선 수원시 권선구

‘사진으로 보는 대한적십자사 120주년’ 페이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활동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어 그동안의 발자취가 한눈에 들어와 보기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적십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 후원까지 하게 되어 참 보람을 느낍니다. 언제나 힘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여용희 인천시 남동구

청소년적십자의 해외봉사 활동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붕대 하나, 붓질 하나로 연결된 마음’이라는 제목처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나눔이 된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 RCY 활동을 했던 아들의 모습도 떠올라 더욱 뭉클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적십자가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이순화 강원도 강릉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적십자사의 긴급구호 활동 기사를 읽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큼이나 마음의 상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어요. 급식지원, 물자지원, 구호장비도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회복까지 돌보는 세심한 구호활동이 인도주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창희 경기도 이천시

후원자 선물 당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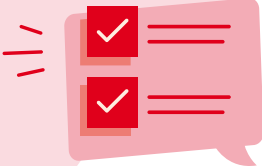
-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 양은선, 여용희, 이순화, 이창희
-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 김석범, 이경애, 전호재, 최대영
-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 김남호, 김상옥, 박은실, 박지훈, 유수현, 장도예, 정규연

RedCross는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코너 및 만족도 조사

.독자 참여 QUIZ!



OO에 들어갈 이름을 맞춰 보세요!
후원자 코너 QR코드를 통해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RedCross> 6월호 25쪽에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선 물



4명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2만 원)



5명
대한적십자사 미니 구급함



7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래봐도 독수리!
전 세계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아가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전한다!”

나는 이래봐도 독수리!
많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OO, OO와 함께 어디든지 날아가지요.

우린 아직 알리라 무엇으로 태어날지 모르지만
무궁무진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우린 **OO**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



동그라미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이름을 맞춰보세요!

- ① 너란, 나란, 세호(Saving Hopes)
- ③ 날안, 널안, 새호

- ② 나랑, 너랑, 새오
- ④ 나란, 너란, 세오

고객
만족도 조사

<RedCross>는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2025년 <RedCross> 여름호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905 - 2025

1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기마다, 대한적십자사가 희망의 길을 찾아갑니다.

2025



2023



희망이 필요한 순간,
대한적십자사